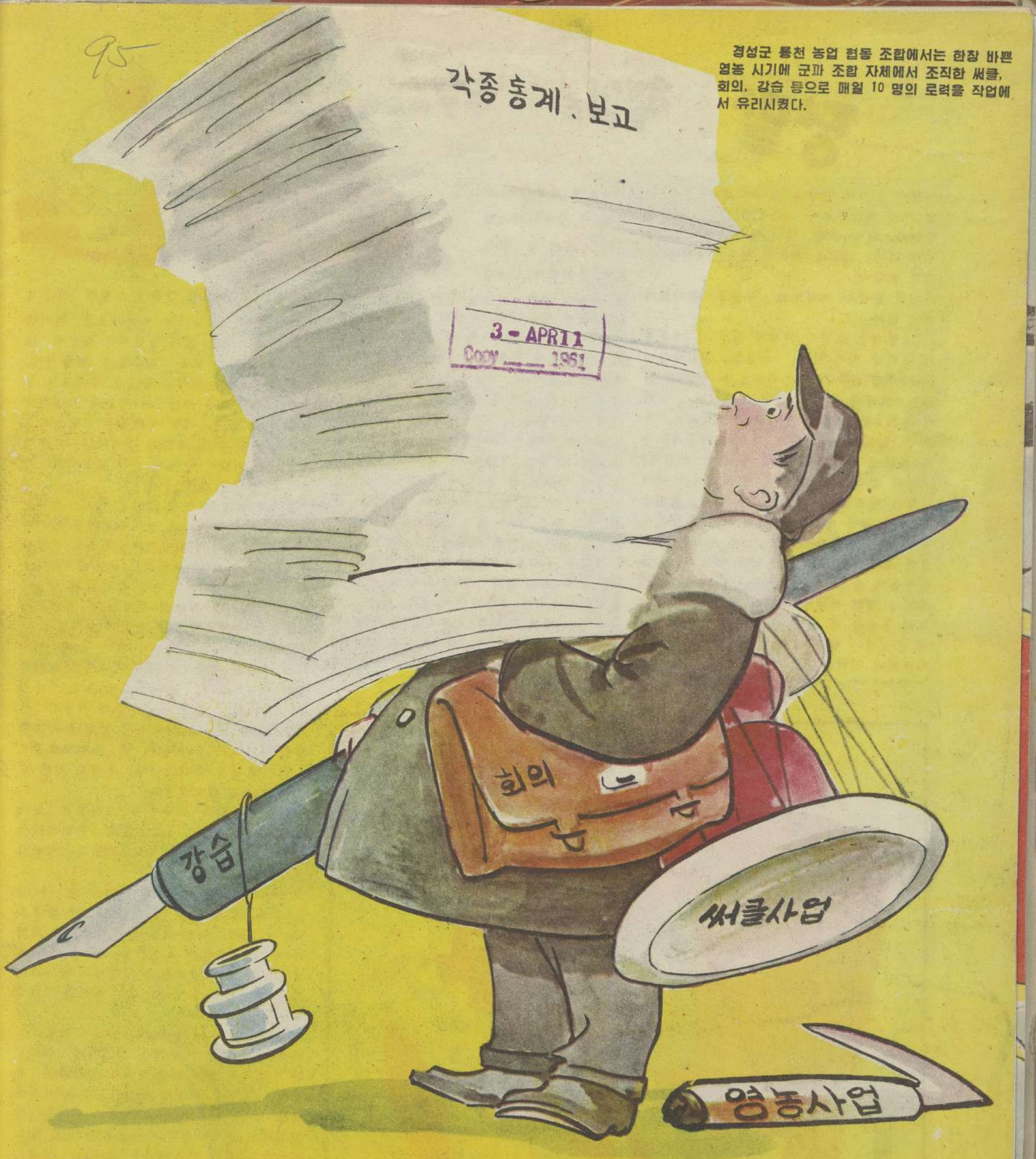
경성군 룡천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한창 바쁜 영농 시기에 군과 조합 자체에서 조직한 써클, 회의, 강습 등으로 매월 10 명의 로력을 작업에서 유리시켰다.



3 - APR 11
Copy 1961

홍 종호 그림

관리 위원장—낫은 어떻게 할까?

화살

1960년 2월 상반호 (119)

정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강서 농기계 작업소 지배인 윤 명훈은 지난 기간 뜨락또르의 가동률이 낮은 원인과 발갈이, 연경(운반, 탈곡 등 발갈이 외의 일체 작업) 계획을 못하고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앞에는 뜨락또르 가동률 분석표가 놓여 있다.

(그렇지! 고장이 이렇게 많으니 가동률이 올라갈 리가 있나, 제길할, 운전수들이 잘 다루질 않는지, 뜨락또르가 낡았는지, 뜨락또르들이 수명이 다된 모양이야, 그런데 온천 작업소에선 우리보다 뜨락또르 수두 더 많은데 왜 이렇게 고장이 적을가? 우리 한테선 점검 보수를 잘 안해서 그런가? 그러나 점검 보수를 잘 할 데 대해서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했을 리가 없어, 온천군에선 새 차만 받은 모양이지, 그리구 운전수들두 모두 기술이 능하구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 모양이야, 그러나 우리야 새로 나온 운전수들이 많으니 고장도 잦을 수 밖에, 또 가뜩이나 계획 과제를 못하는 데다 다섯대가 수리 공장에 가 박혀 함흥 차사식으로 소식이 없으니… 할수 없지, 조건이 그런거야 어떠커겠나 지배인인들 뾰족한 재간이 있나,

그런데 보섭이나 모든게 다 갖추어져 있는 발갈이는 왜 35% 밖에 못했을가, 그건 또 차륜식 뜨락또르들이 일기가 나쁜 때는 발을 못간 때문이야, 원인이 거기 있어, 여기야 지대가 나쁜데니까 할 수 없어, 날구뛰는 지배인을 앉혀 놔도 이런데선 뾰족한 재간이 없을거야, 제길할, 이런데 비래도 좀 적게 왔으면 오죽 좋겠나, 하늘까지 날 못살게 군단 말이야, 음?! 그런데 온천군은 뜨락또르 수'자가 우리보다 많은데 일기 불순으로 일 못한 시간이 왜 이렇게 적을가? 그것도 이상한 건 없지, 비록 거의 린접하다 싶이 한 군이지만 소낙비야 그 군에 안올 때도 우리 군엔 올 수 있으니까, 하늘이 하는 노릇이야 낸들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리구 부속품 부족은 왜 또 이렇게 많나? 이게 모두 우에서 공급을 안해 줬기 때문이야, 그런데 순안군이나 온천 작업소 같은데선 어떻게 부속품 부족으로 일 못한 시간이 이렇게 한 시간도 없어? 모를 일인데? 수리소에서 웬만한 부속은 모두 해결하구 부속품 예비를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가? 아니야, 도 농기계 관리처에서 거기엔 특별히 부속들을 많이 주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통계가 잘못 되였거나 했을거야, 그렇지 않구야, 우리는 부속품 부족으로 일 못한 시간이 629 시간이나 되는데 한시간도 없을 리가 있나, 어떤 사람들은 뜨락또르를 만드는 기양 기계 공장이 곁에 있다고 우리 작업소는 조건이 좋다고 볼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부속을 그저 주나.

농기계 고장도 적지 않군! 여긴 경사진 데가 많구 진땅이니까 평지대보다야 아무래도 고장이 많기 마련이지, 온천군도 진땅이긴 하지만 거긴 평지대거든, 그런데 뜨락또르 가동률은 정 낮은 편은 아닌데 왜 발갈이나 연경 계획을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거든, 룡강 작업소에선 가동률이 우리보다 더 낮은데도 연경도 우리보다 많이 했고 발갈이는 우리의 배반이나 했는데…거긴 조건이 좋기 때문이겠지, 우리 군이야 모두 진땅이구, 비가 많이 왔구 운전수들의 기능이 어리구 또 곤난한 조건이 뭐이 있겠나… 그렇지! 사리원에 수리하려 간 뜨락또르들이 오래도록 일을 못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곤난한 조건만 없으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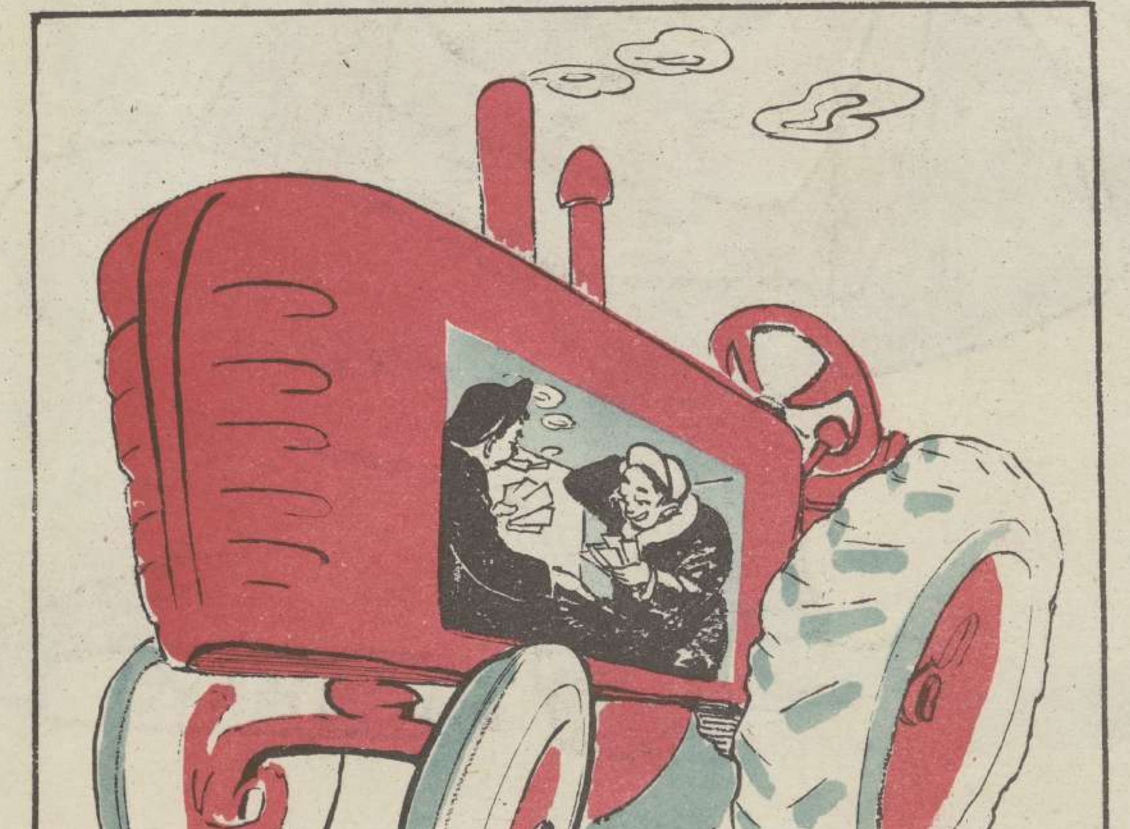
이렇게 작년에 지배인과 기사장은 일이 잘 안되는 원인을 지도 일'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객관적인 《곤난》한 조건에서만 찾으려고 애썼다.

때문에 일기가 나쁠 때 진데도 갈 수 있는 뜨락또르 바퀴를 준비하거나 진 땅에도 갈 수 있는 무한 궤도식 뜨락또르를 배치하며, 운전수들이 토질이나 포전을 잘 료해하도록 일하는 리를 고정시키는 등, 뜨락또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예비가 있음에도 찾지 않았다.

그리고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 보수를 잘하고 기술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못했으며 수리도 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부속품 예비도 적었다. 또한 리들에 나간 뜨락또르 운전수들에 대한 지도를 잘 안한데서 운전수들이 뜨락또르를 세워 놓고 낮잠을 자거나 가을갈이를 해야 할 때에도 쉬운 운반과 탈곡에만 달라 붙어 있는 사실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여 뜨락또르 가동률과 생산 능률을 높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곳 지도 일'군들은 결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데 너무 인색하여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다.

리 운봉



홍 종호 그림

회의병에 걸린 사람

홍 종호 그림

함북 라남시 봉암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달구지 31 대, 호리 32 대, 축력 제초기 19 대를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공동 재산 관리에서 무책임하다.

버림 받은 농기구들

조 명식 그림

—제길할 눈이나 많이 와서 보이지 않으면 말성이 없겠는데

린산군 석련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소농기구를 자체로 수리할 수 있는 야장'간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농기구 수난도

최 영근 그림

—여보 당신도 군으로 가오? 나두 좀 데려다 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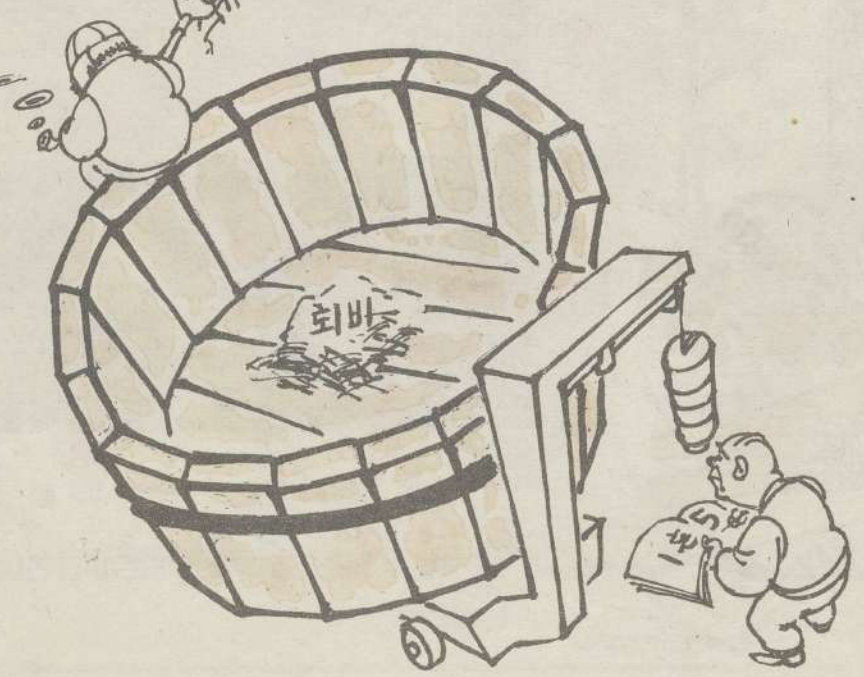
—별 수 있소. 우리 조합에는 야장'간이 없는데

영농 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봄은 왔건만

최 영근 그림

— 1톤 500 그람이라 !



봉산군 문현리 농업 협동 조합의 자급 비료 생산은 락후한 형편에 있다.

최 영근 그림

금년 농사는 〈만사태길〉이군

평산군 한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작년 여름철부터 〈거름 더미는 쌀 더미〉라는 귀중한 진리를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이 조합에서 자급 비료 생산은 언제나 6.4%에서 꿈적 안하고 있다. 그래서 군에 전화 보고를 할 때마다 이 적은 폭로 수가 체면에 거슬려서 관리 위원장은 눈을 슬적 감고는 이 수'자를 젯깍 승법으로 암산하여 24%입니다. 하고 불러 대기를 서슴치 않게 되였다. 그래서 한포 농업 협동 조합 자급 비료 생산 수'자는 고정 불변하지만 눈만 슬적 감으면 수'자가 올라 갔다가 눈을 번쩍 뜨기만 하면 내려 가군 해서 〈고무 풍선식〉 거름 생산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였다.

관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정초부터 한포역전 제재 공장에서 나오는 톱밥을 농가에다 분배해 주고 톱밥재를 받아 거름을 확보할 계획 밑에 〈톱밥 공급〉을 시작하였다. 이 톱밥 공급이 시작되자 조합내 일부 게으름뱅이들 측에서는 관리 일'군들의 조직 사업에 대하여 〈호평〉이 자자했다.

《관리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거름 생산은 참 생각을 잘 했거든. 부엌을 걸치고야 비료가· 쏟아져 나오게 마련했으니 꿩먹고 알먹는 셈이 아니요…》

이렇게 도리가 〈명철〉한 관리 일'군들이였지만 년중 계속적으로 생산해야 할 거름이 농호당 10 톤이요. 소 1두당 10 톤이요 돼지 한마리 앞에는 4 톤이고 닭 한마리는 400 키로그람씩이라는 데 대해서는 알지못했다.

거름에 대한 관리 일'군들의 관심 여하를 솔직하게 반영해 주는 것은 조합 목장 돈사였다.

빙상 경기장을 련상케 하는 이 돈사에는 깃이라군 한우쿰도 없고 어름판으로 깔려 있어 여기에서는 구비가 도저히 생상될 수 없었다.

이런 〈성의〉로서 조합 관리 일'군들은 그래도 금년엔 지난 해에 묵였던 미루땅과 천수답 75 정보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밭 체뚝에서 20 정보의 새 땅을 더 얻어내고 논에는 호밀과 봄보리 봄 소채를 심어 가축 사료를 해결하고 밭에는 밀 후작으로 옥수수를 심고 간작으로는 콩을 심는 등으로 토지 리용률을 24% 이상 높인다는 것이다.

현실적 기초가 없는 이 지상 계획은 삼년 차비에 제 떡이 쉬일 지경인 농사 차비에 아무런 자극도 줄리 만무하다.

거름 생산은 이렇게 한심한데 그럼 쟁기와 종곡에 대한 형편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농기구 실사 대장과 종곡 대장의 말을 들어 보자. 《개인별로 갖추워야 할 쟁기 24종과 작업반 별로 갖출 쟁기 32종은 어느 농기구 공장인지는 몰라도 따뜻한 봄날에 기차를 타고 한포리에 당도할 것을 믿는바이고 11,200 여 개의 랭산모판 문짝들은 봄바람에 어데선가 날아 올줄로 생각합니다.》

종곡 대장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조합 포전 감정에서 영예의 합격을 쟁취한 우리 동무들을 제외한 나머지 옥수수와 콩 종자들은 평북 지방에서 올 것 같은데 우리 조합에서 떠나갈 동무들이 아직 차비가 되지 못해서 그냥 쭈물거리고 있습니다.

무 배추 가지 종자들도 모두 그런 처지에 있고요…》

평산군 한포리 농사 차비는 이처럼 〈만사태길〉인데 관리 일'군들이 거름 생산, 토지 정리, 농기구 수리에 주되는 사격을 퍼부어야 한다는 확신에 도달하자면 어느 세월일가?

서 득창

《협동 조합의 공동 재산과 공동 경리는 조합 발전의 토대이며 조합원들의 생활 향상의 원천입니다. 공동 재산을 탐오 랑비하며 략취하거나 공동 경리에 불성실하게 참가하는 경향들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성)

금고냐? 물독이냐?

홍 종호 그림

황남 안악군 대추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가불이란 명목하에 막대한 조합 재산을 람용하였다.

홍 종호 그림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토끼쯤이야!

청소하러 토끼사에 들어 간 삼석 구역 로산 농업 협동 조합 토끼 관리공 박 용하 동무는 한숨을 길게 쉬면서 토끼 우리에서 폐사된 토끼를 끄집어 낸다.

때마침 토끼사에 들린 돼지 관리공이 이 광경을 보고

《용하 동무! 관리 일'군들에게 동무를 토끼 관리공이라고 부르기보다 차라리 폐사 토끼 처리공으로 불러 달라고 제기하지요.》

《……》

토끼사는 명색 《온돌방》에 《2층 문화 주택》으로 설치되여 있는데 온돌에 불은 《얼마나 잘 드는지》 랭혈 동물들이 한중하기에 알맞을 정도이니 살아 있는 토끼는 목숨이 길다고 봐야 할 것인지?

《용하 동무! 오늘은 폐사된 토끼가 몇 마리나 되오?》

시에서 축산을 지도 나온 홍 경숙 동무가 토끼사로 들어 가며 묻는다.

《열 두 마립니다.》

《열 두 마리? 낳는 토끼보다 죽는 토끼가 많으니 토끼사를 폐사로 만들겠군!》

용하 동무는 죽은 토끼를 홍동무 앞에 갖다 놓는다.

세 마리를 해부해 본 결과 모두 간장 콕시듐병으로 판명되였다.

《토끼는 다즙 사료, 청사료 건초, 농후 사료 등 사료 급여 기준에 립각하여 골고루 먹여야 하는데 콩깍지만 계속 먹이니 간장 콕시듐병에 걸릴 수 밖에 더 있소!》

《흥! 콩깍지도 매일 농산 작업반에 가서 구걸하여 제대로 먹이지 못한답니다…》

박 동무는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한다. 사실상 이곳 조합 관리 일'군들은 토끼 사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의 방역 사업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하였다. 우선 관리공이 개체 위생을 지키도록 위생복과 장화는 갖추어 주어야 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밑에서 혀가 닳도록 제기했으나 오늘까지 펑 구어 먹은 소식이다. 특히 관리 위원장 동무는 수의 방역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나머지 시 수의 방역소에 3 명을 강습 보내라고 할 때 〈수의 강습에 갔다 와도 나만치 모를 걸〉하고 《재치》 있게 한 명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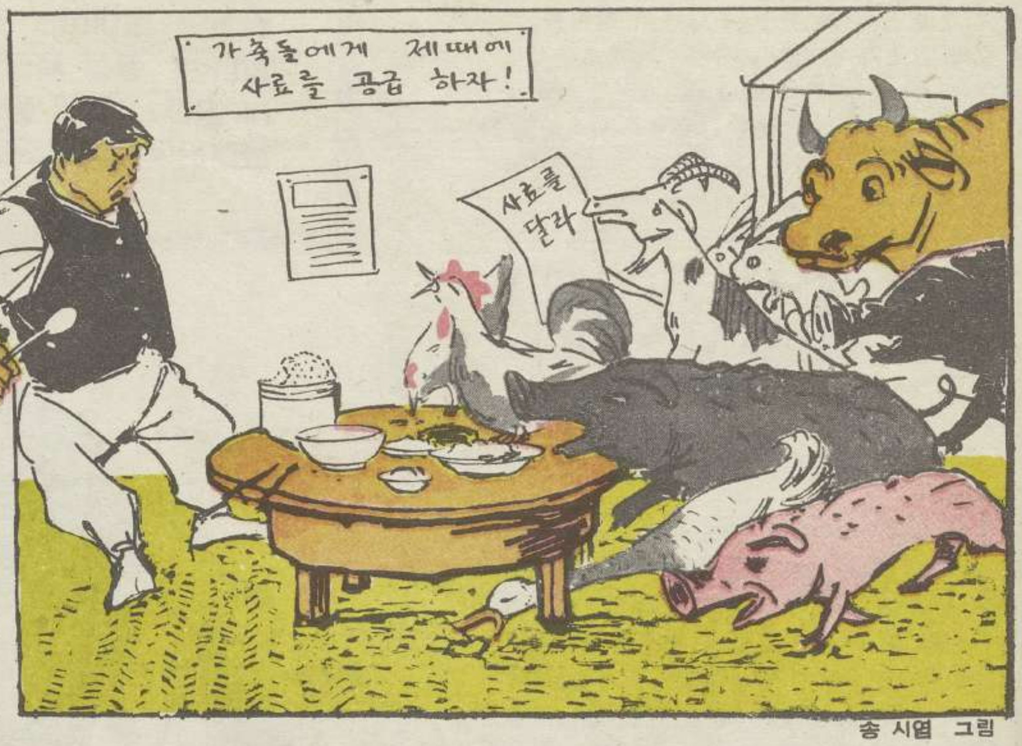
그리고 관리공도 상부에서는 6개월 이상 고착시키라는데 석 달이 멀다고 교체시켰다.

토끼 사양도 요는 조합 관리 일'군들의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올해 이 조합에서 토끼 고기 10 톤을 생산하자면 1월 말 현재로 어미 토끼를 적어도 250 마리는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 조차 모르고 있으니 관리 일'군 동지들! 《토끼쯤이야》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고 인정하기는 곤난하잖습니까?

피 호주

참다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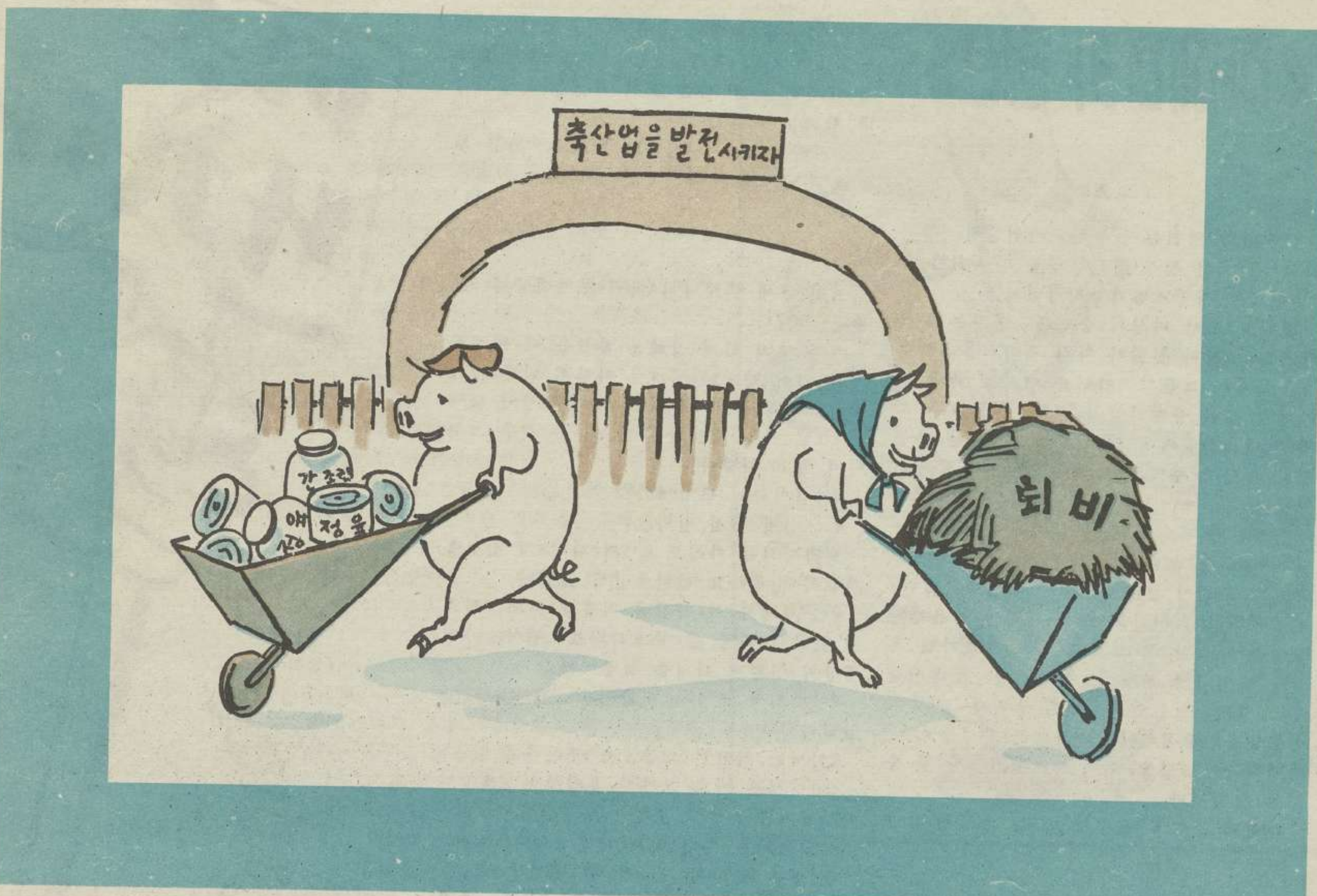
송 시엽 그림

강제 결혼

황해남도 벽성군 석동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가축들의 퇴화와 잡종화를 방지하고 생산성이 낮은 재래종을 우량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노력이 미약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허 능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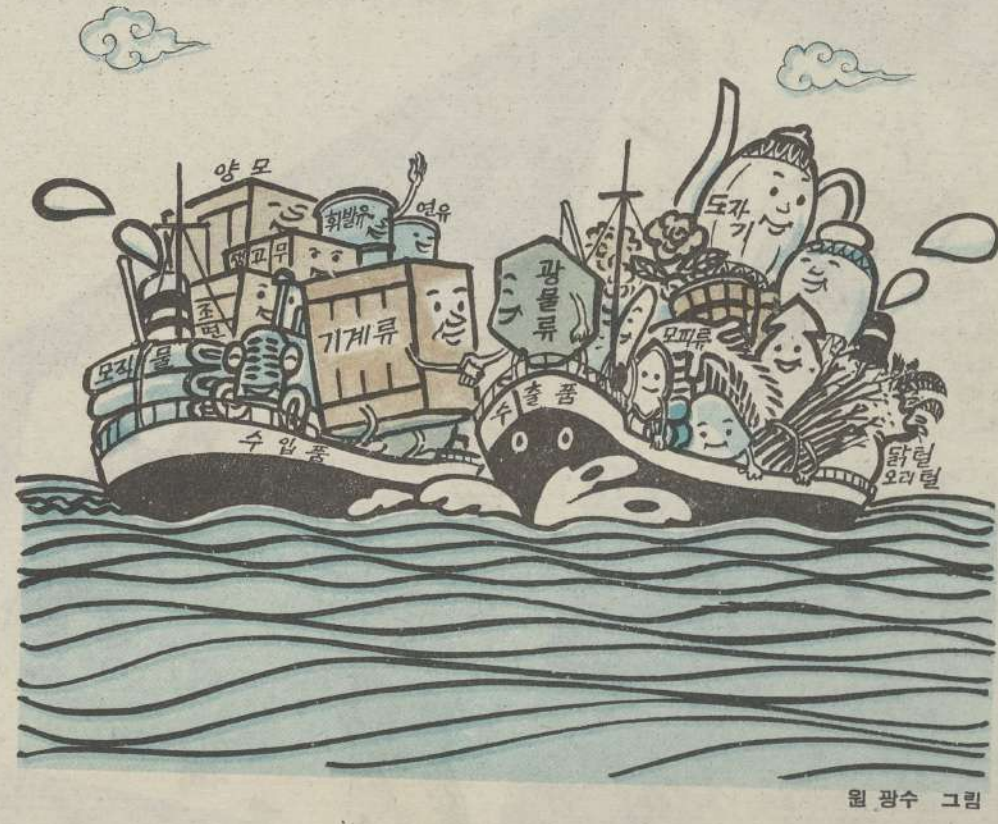
일거 량득



함흥시 하신흥동 38반 주 락겸 그림

평양시 동구역 신흥동 주택 거리에는 화단은 물론 없고 쓰레기 통은 파괴되여 지저분하다.

더 많은 외화를 벌기 위하여



원 광수 그림

《아메리카 정신》

오 홍택

맥케너리 대위는 흡족한 자위감에 잠겨 있었다. 그의 천성인 잔인성을 만족시킨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기까지하였다.

첫째로 조선 녀성의 증오에 불타는 눈과 항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이 흡족하였고, 둘째로 그들의 머리를 면도로 빡빡 깎아버린 것이 유쾌하였고, 세째로 이 모든 죄과를 피해자들에게 넘겨 씌울 수 있는 만능한 권한이 부여되여 있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맥케너리 대위는 최근의 생활에 참을 수 없는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우선 모험이 없는 생활이 불만족하였다. 미국에서라면 시카고의 밤 거리에서 은행과 상점을 습격할 수 있었고 그도 부족하면 흑인을 린치하여 본래의 잔인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으레히 미국의 신문들을 장식하여 캥 사건의 주인공으로, 아메리카의 《영웅》으로 추대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운수가 좋아 그랬던지 또 그의 병사들 속에서 조선인을 랍치해 오는 경우 3일 간의 휴가를 준다는 명령이 효력을 내였던지 길 가는 조선 녀성을 2 명씩이나 랍치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녀성들의 머리를 깎는 것으로 잔인성을 만족시켰던 것이다.

× ×

며칠 후에 맥케너리 대위는 련대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가 호기 있게 경례를 부쳤을 때 련대장은《사건이 확대》되였다고 하면서 담배 케스를 그의 코 앞에 내 밀었다. 련대장이 담배를 권할 때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건이라니 뭐입니까?》

《그 삭발 사건 말이요》

맥케너리는 아직도 《사건 확대》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떠들고 있소. 새해의 한국의 가장 큰 뉴스꺼리로 말이요》 련대장이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다.

《아메리카 군인의 대담성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잔인한 행동으로 규탄하고 있소》

《잔인성은 미국 군인의 용감성의 표징이 아닙니까?》

맥케너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여론은 당신이 야만적 행동을 한 것으로 규탄하지만 당신은 아메리카 정신을 잊지 마시오》

맥케너리는 흡족한 마음으로 련대장실을 나왔다.

× ×

또 며칠이 지나 갔다.

신문을 뒤적거리던 맥케너리는 깜짝 놀랐다. 자기에게 삭발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을 주며 《중대장》 직위에서 《해임》시킨다는 유엔군 사령부의 발표가 게재되여 있었다.

그는 흥분을 참을 수 없어 사단장을 찾아 가기로 결심했다.

《마침 잘 왔소. 당신은 처벌을 받았소》

사단장은 온화한 말로 이렇게 서두를 떼

조선 녀성들의 머리를 깎아 버리며 녀성의 옷을 벗기고 하반신에 뼁끼칠을 하여 네거리에 추방한 사실을 비롯하여 남조선 도처에서 총질, 칼질, 강탈질을 일삼고 있는 미제 야수들의 귀축 같은 만행은 사람들을 분노에 떨게 하였다.

백 인균 그림

, 모욕을 참을 수 없습니다.》

리는 흥분하여 도전하였다.

이 녀성의 머리를 깎아 버린 것은

죠》

《그것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각하는 모릅니까?》

《어쨌든 잘못이요》

《우리 미군에서 언제 조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메리카 정신을 모욕하는 책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맥케너리의 이 말을 듣던 사단장은 갑자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새로운 명령서를 내놓았다.

어리 벙벙해진 맥케너리는 명령장을 집어 들었다. 명령서에는 맥케너리 대위의 이름과 부대 이동을 명령한다는 글자가 찍혀 있었고 사령관의 수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임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게 뭐입까?》

《맥케너리 대위에게 행운이 쏟아졌소. 아메리카 정신을 발휘한 당신에게 새 부임지를 희망 대로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였소. 극동의 다른 지역이든지 구라파든지 미국 본토든지 희망대로의 지역을 당신의 손으로 기입하시오》

사단장의 말에 맥케너리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각하, 사령부의 공식 발표는…》

맥케너리가 말을 맺기도 전에 사단장은 설명을 덧붙였다.

《그것은 공식 발표고 이것은 정식 명령이요》

《각하, 근데 아메리카인의 자존심을 손상시킨데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맥케너리는 마지막 의문을 말했다.

《그 대신 당신은 우리 미군들 속에서 영웅적 존재로 되였소. 그러나 당신의 불찰은 알아야 하오. 조선 녀성을 머리를 깎은 후에 깨끗이 처치해 버렸다면 적어도 당신은 봉급의 1년 분의 상금을 받았을 것이오. 새로운 임지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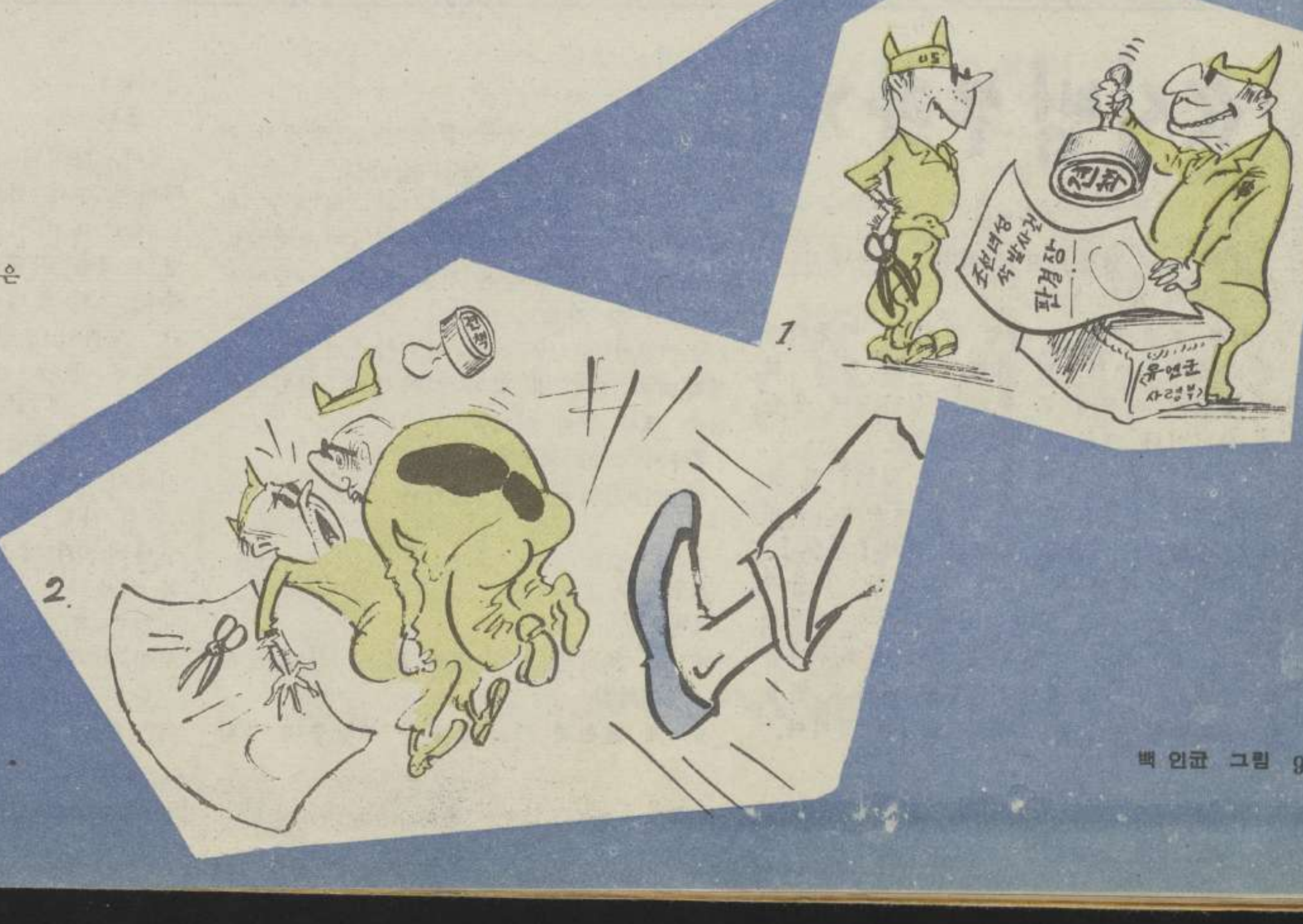
사단장은 맥케너리 대위에게 이렇게 정중히 훈시했다.

살인귀들의 비품

홍 종호 그림

발'자욱의 주인

진짜 락인



백 인균 그림

뒤바뀐 세상

박 승히 그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함남도 정평 요업 공장 리 수길 그림

남조선의 춘하 추동

허 능택 그림

《시범 부락》

신 홍순

얼마 전에 년풍리라고 하는 부락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 났다.

이른 새벽부터 도 산업 기수를 비롯하여 군 농산 기수며 면 서기, 구장 할것 없이 통털어 나서서 온 동리를 돌아치며 무슨 큰 사변이나 생긴듯이 볶아 친다.

《이봐! 무얼 그리 꾸물대고 있어? 이 동네가 시범 부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 손님이 시찰을 오신단 말야! 시찰!》

이자들이 볶아 치는데는 일정한 리유가 있었다.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외국 기자들까지도 남조선을 기아와 빈궁의 생지옥이라고 비난한 터이라 〈시범 부락〉이라도 만들어 남조선의 진상을 음폐해 보자는 것이다.

◇ ◇

《어서 빈 가마니들을 있는 대로 꺼내서 거기에다 벼'겨를 담아 놓란 말야!》

《벼'겨요? 웬 벼를 찧었어야 벼'겨구 뭐구 있죠? 〈토지 상환곡〉이니 〈비료대〉니, 〈수세〉며 〈세금〉 같은 걸로 타작 마당에서 다 긁어 간 걸요》

《벼'겨가 없어? 그럼 말이야, 가랑잎이나 짚북데기 같은 걸 담아서 마루며 헛간에다 잔뜩 쌓아 놓란 말야》

《아니 그건 왜요?》

《어서 시키는 대로 허기나 해!》

◇ ◇

《구장!》

《네》

《알고 보니까 이 동네에 앓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

《그게 앓는게 아니라 모두 부황증에 걸린 겁니다》

《부황증?》

《네, 량식이 떨어져서 굶었기 때문입죠, 태반이 그런 형편입니다》

《음,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대책을 취해야지, 만약시 외국 손님이 불쑥 그런 집에 들어 갔다간 망신이란 말야. 그러니까 얼굴이 퉁퉁 부은 사람들은 공회당 앞 큰 빈 창고 안에다 몰아 넣고 쇠를 잠그도록 하쇼!》

《창고 안에답쇼? 아니 이 추위에 그런 한지에다 어떻게…》

《원 이런? 불을 피우면 되잖아? 연기가 안나게스리 숯불을 말야 어? 빨리 옮기도록 하쇼!》

◇ ◇

얼마 후에 괴뢰 정부 농림부의 무슨 파장이란 자가 미국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다.

《이 동리가 모범적인 〈시범 부락〉이 올시다. 자 그림 저기 저 집으로 가 보시죠》하고 도 산업 기수가 미리 준비해 놓은 김 로인의 집으로 안내한다.

《저 마루에 쌓인게 다 곡식이 올시다. 우리 한국의 농촌은 이렇게 부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국 사람은 깜짝 놀랐다. 왜냐면 미국 정부에서는 잉여 곡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 남조선의 농촌을 계통적으로 파탄시켜 왔는데 개인 농가에 이렇게 곡식이 있다니? 이상한 일이다. 사실상 그는 남조선의 농촌 실정 특히 토지를 척박하게 만드는 미국산 비료의 성능 여부를 조사하러 온 것이다. 그는 《곡식 가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김 로인에게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다.

김 로인은 한숨을 후—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옛날부터 여기는 이밥에 장작불 때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해마다 풍년이라 하여 동네 이름까지도 년풍리라고 불러 왔죠. 그러던게 오늘에는 부채 더미에 올라 앉아 헐벗고 굶주리는 기막힌 생활에로 전락되였지요. 마루에 저렇게 가마니가쌓인 것을 보니 예'날 생각이 나는군요》

《뭐시? 이놈의 령감이?》 농림부 파장이며 산업 기수들은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했다.

미국 사람은 대뜸 마루로 올라 가더니 칼로 가마니 중둥을 부욱 그어 본다. 그것은 쌀인 것이 아니라 가랑잎이다. 그는 《그럼은 그렇지!》하고 하하하…의미 심장하게 웃어댄다.

파장이며 기수들은 자기들의 기만적인 행위가 폭로된 것을 비웃는 웃음으로 알고 더욱 당황망조하여 어쩔줄을 모른다.

그들 일행이 공회당 앞 창고 옆을 지날 때 창고 안에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

《개자식들! 어디 두고 보자!》

《오우 이 창고 안에 무슨 것 있습니까?》

《네, 곡식이 들어 있습니다》

《곡식? 그런데 웬 사람의 소리가 납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 쥐 소릴겁니다. 어서 저리로 가시죠》

《쥐가 아닙니다. 틀림 없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저것 보시오! 어서 창고 문을 열어 봅시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잠을쇠를 열었다. 얼굴이 퉁퉁 부은 농민들이 미국놈파 그의 일행을 보더니 와—하고 달려 든다.

《이 인간 백정놈의 자식들! 너희놈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주위에 있던 부락 사람들이 이에 합세하여 말뚝이며 장작, 도끼, 삽자루, 돌맹이 할 것 없이 닥치는대로 놈들에게 뭇매를 퍼 붓는다.

놈들은 코가 터지고 머리가 깨여진 채 다리를 절며 간신히 도망들을 쳤다.

다 죽어 가는 놈 약 먹인다고 살까?

미국 침략 계층은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신년 벽두부터 남조선에 유도탄을 또 다시 끌어 들이는 등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바 이것으로써 다 죽어 가는 리 승만 도당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 명식 그림

막을 수 없다

박 승히 그림

《사단장》의 《특별 훈시》

라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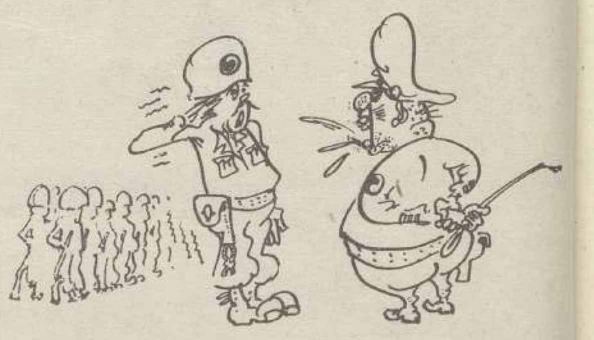
《차렷!》

급작스럽게 《사단장》의 《특별 훈시》가 있다 해서 《병영》 앞뜰에 대렬을 짓고 대기하고 섰던 《대대장》이 악을 쓰며 《구령》을 쳤다.

《륙군 보병 제 8 사단 제 1 대대 전원 120 명은 명령대로 각하의 특별 훈시를 대기중에 있습니다》

《좋소! 그런데 대가리수가 왜 그것 밖에 안돼? 앙?》

《옛! 도망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밤도 20 명이 도망쳤습니다》.



《에잇, 빌어 먹을! 그래 도망칠 때까지 네놈은 무얼 했어?》

《옛? 밤잠을 못자고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쥐새끼들처럼 도망쳤습니다》

《그 뿐인가?》

《옛! 훈련중에 기합에 못이겨 쓰러진 자들을 어제만 해도 10 여명을 입원시켰습니다》.

《칙쇼! 그런데 남아 있는 놈들의 낯판대기는 왜 저렇게 희여멀뚝한가?》

《옛! 잘 먹지 못해 그 모양…》

《닥쳐!》

《사단장》은 허리에서 권총을 뽑아 들었다.

《그래 네놈은 국군의 명예를 훼손시킬 작정인가?》

《옛! 죄송합니다!》

《그런데 특별 훈시란 다름이 아니다. 네놈의 대대에서 오늘부터 미군 병영 보수 작업에 동원되여야 하겠다. 알았는가?》

《옛! 들었습니다》.

《미군 제 1 기갑 사단 본부에 100 명을 보내란 말이다. 그리고 우리집,…엣또, 우리집 수리에 열 명! 그리고 얼마 남는가?》

《옛, 열 명이 남습니다.》

《그 열 명은 삼상봉에 파견하여 나무를 찍어서 팔게 하되 그 대금은 사단 운영비로 돌릴 작정이니 나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라! 알았는가?》

《옛!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각하! 모두들 여름옷을 입고 있는데!》

《앙, 여름옷!》

《사단장》이 또 눈을 부릅뜨고 쏘아 보는 통에 《대대장》은 겁에 질려 《옛! 추운대로 견디어 내겠습니다》라고 재빨리 비위를 맞추었다. 《사단장》의 《특별 훈시》란 이런 것이였다. 그리하여 괴뢰군 보병 제 8 사단 1 대대 사병들은 《사단장》의 《특별 훈시》대로 이날부터 미군 병영과 《사단장》의 집 수리는 물론 그의 배때기를 불리워 줄 벌목에 내 몰리웠다.

사병들은 《사단장》의 《특별 훈시》에 의해 몰리워 가다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

《기상 나팔 띠따띠따 들려 온다.
한손에 걸레 들고 한손에 깡통,
아아 혹심한 생활》

이 노래가 끝나자 인차 대렬 속에서는

《우로 어깨 보따리 고향 앞으로 갓!》 하는 구령이 튀여 나왔다.

사병들은 모두가 리 승만 도배에 대한 증오와 함께 《국군》 소굴을 벗어날 결심이 더욱 치받쳤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병들은 고역장에서 《비행기 고문》까지 당했다. 그런 봉변이 있은 며칠 후 일이였다. 《대대장》은 헐떡거리면서 《사단장》실에 들어 왔다.

《사단장님!》 어제밤 우리 대대에서 몇 놈이 탈영을 했습니다》《뭐 탈영? 에잇! 당장 전 대대를 동원시켜 검색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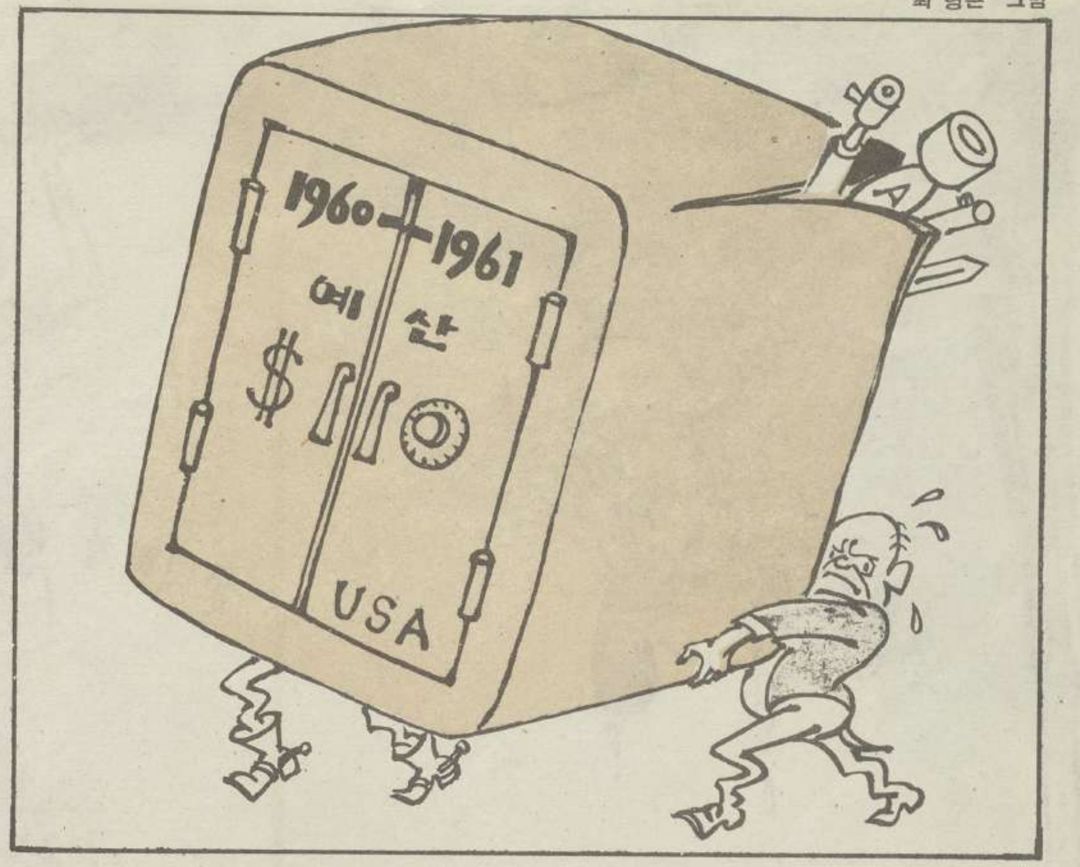
그날밤으로 《대대장》이 또 헐떡거리면서 《사단장》실로 들어 왔다.

《사단장님! 검색 나갔던 놈들도 다수가 도망쳤습니다.》

《무엇이?》《사단장》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 서다가 맥 없이 펄석 주저앉고 말았다.

무기로 가득찬 예산

최 영근 그림



《전쟁 광신교》의 사도들

아이젠하워—오직 나는 군비 확장만을 믿습니다

박 승히 그림

눈서기

백 인균 그림

전쟁 열성 분자

최 영근 그림

일미 합작

(일미 군사 동맹 조약 체결)

지난 1월 19일 미일 량국 정부간에 《호상 협조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이란 군사 조약이 체결되였다. 조선 인민은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동맹》하여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적 음모를 결코 용허할 수 없다.

조 명식 그림

최 영근 그림

백발 백중

조 명식 그림

독자 여러분에게

"화살"은 정치 시사 만화 잡지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것과 침체적이며 보수적인 현상을 비판하며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반동적 정체를 폭로 규탄 하는 사명을 지니고 매월 2회 발간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한과 투고 작품들은 "화살"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농촌, 가두에서 일어나는 생동한 자료들로써 만화, 풍자소설, 풍자시, 만문, 만시, 펠레똔 등 작품을 창작하여 계속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접 창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느 때 어느 곳 누가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만 써보내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화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살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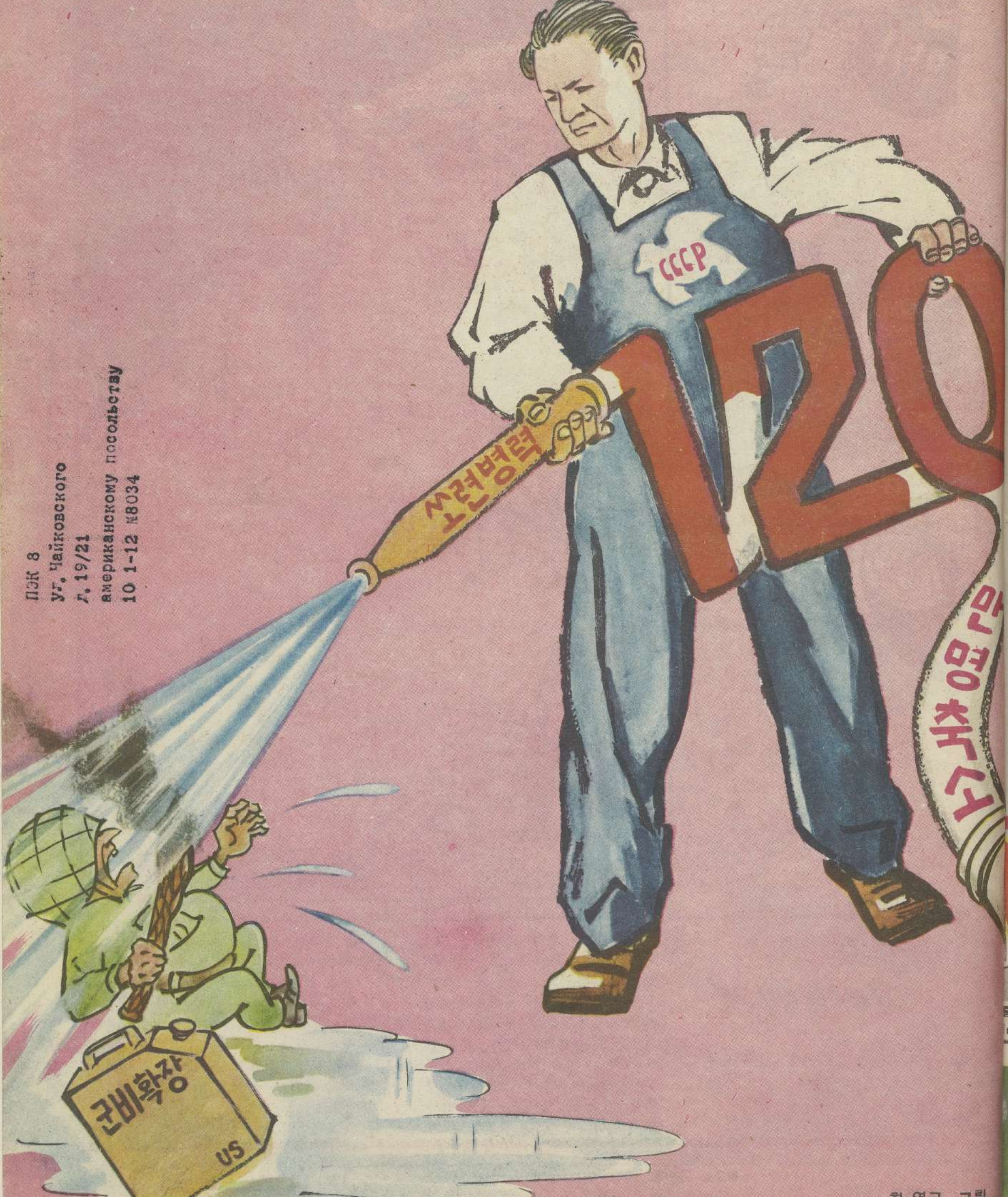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178
발행 1960. 2. 11
(값 40전)

평화는 전쟁을 타승한다

8034
Хвальсель

95

ПЭК 8
уг. Чайковского
л.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



최 영근 그림